

중간고사 대신 진로캠프 열어 '꿈·끼' 찾는다

2학기 자유학기제 시범실시 광주·전남 5개교 운영계획보니

탐구·협동학습 등 참여중심 수업 진행

평소 진단평가 실시 학력저하 우려 대비

자유학기제 시범학교들은 교육과정에 '진로와직업' 과목을 신설하고, 중간고사·기말고사 기간에는 진로캠프 등 진로체험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학력저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상적으로 진단평가를 시행하는 등 방안을 모색 중이다.

18일 광주일보가 광주·전남지역 자유학기제 시범학교 5곳의 운영계획을 분석한 결과, 교육과정에서 국

문과 사회·도덕 등의 시수를 줄이고 대신 '진로와직업'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선택프로그램(창의적체험활동)을 크게 늘렸다.

광주 서석중·순천 이수중·화순 동면중·완도 청산중 등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오전에 기본교과를 편성하고 오후엔 학생선택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반면, 광주 동신중은 수요일 전일제 진로 등 창의적체험활동을 편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학교의 1학년 학생들은 2학기 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지 않는다. 대신 이 기간동안 진로캠프나 진로체험학습을 떠날 계획이다.

서석중은 10월8~11일 중간고사기간에 샘솟는아동청소년상담센터와 함께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집단상담을 통해 자기자신을 이해하고 자신감을 불어넣겠다는 의미다.

소규모학교인 화순 동면중과 완도 청산중은 공동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간고사 기간에 경기도에서는 오전에 기본교과를 편성하고 오후엔 학생선택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반면, 광주 동신중은 수요일 전일제 진로 등 창의적체험활동을 편성해

로젝트학습·협동학습 등 참여와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어교과의 '여러 가지 설명 방법' 중 '은행 문은 왜 안쪽으로 열릴까'라는 단원은 토의학습을 적용해 수업하는 방식이다.

꿈과 끼를 펼칠 동아리활동의 활성화는 공통적이다.

평가는 100% 수행·과정 평가로 진행한다.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학습 활동 진보 정도와 수행평가 결과, 특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생활기록부에 기술하고, 특기사항도 1~2개 선정해 기록한다.

특히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소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32분 해질 19시 45분 달출 16시 09분 달정 01시 39분

따가운 햇볕 무더운 가운데 일부 지역 열대야 있었다.

광주	구름맑음	24/32°C
목포	구름맑음	24/31°C
여수	구름맑음	24/30°C
나주	구름맑음	23/32°C
완도	구름맑음	24/32°C
구례	구름맑음	22/33°C
강진	구름맑음	23/31°C
해남	구름맑음	24/32°C
장흥	구름맑음	23/32°C
순천	구름맑음	21/32°C
영광	구름맑음	24/33°C
진도	구름맑음	24/30°C
전주	구름맑음	24/34°C
군산	구름맑음	24/32°C
남원	구름맑음	21/32°C
혁신도	구름맑음	24/29°C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경고	위험	매우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경고	위험	매우높음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목포	10:13	03:52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여수	05:25	11:32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25(목)
날씨						
최저/최고	24/32	25/31	25/28	25/30	25/28	25/28

과학경시, 입상자 번복

관련자 '숨방망이' 징계

광주시교육청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강력한 처벌을 지시했던 과학경시대회 입상자 번복 사태(광주일보 6월14일자 6면) 관련자 징계가 결국 숨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서부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과학경시대회 입상자 발표 과정에서 성적 합산의 오류로 87명의 입상자들이 뒤바뀐 책임을 물어 실무자인 A인턴장학사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했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 감사실에서 해당 장학사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해 견책을 의결했으나 장관 포상으로 한 단계 징계가 낮춰져 불문경고 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업무를 맡은 B장학관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에 그쳤으며, 주무 과장은 출장 중이었다는 면책 사유가 적용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앞서 장휘국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책임소재를 가려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달 1일 광주시교육청 주관으로 치른 과학경시대회에서 성적 합산 과정에서 수험생 107명의 점수를 누락해 입상자 87명이 뒤바뀌고 수상이 취소되는 등 소동을 빚은 데 따른 것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호남예술제 새싹 그리기 축제 시상

광주일보사가 주최한 '제58회 호남예술제 새싹 그리기 축제' 시상식이 18일 오후 2시 광주일보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광주일보 박동정 이사, 종합최고상을 수상한 세운그림유치원 김지영 교사, 종합우수상을 수상한 예지어린이집 박인자 원장, 이화순유치원 조금희 교사, 해맑은이화어린이집 김수호 원장.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연예병사 16년만에 없어진다

안마시술소 출입 '상추' 등 물의...8명 징계

말도 탈도 많았던 연예병사 제도가 시행 16년 만에 전격 폐지된다.

국방부는 18일 "국방홍보지원대(연예병사)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방홍보지원대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

치로 홍보지원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춘천에서 지방 공연 후 일부 연예병사들이 음주와 안마시술소 출입 등 군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사건이 발생하자 연예

병사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연예병사로 복무중인 '세븐', '상추' 등이 군 행사를 마치고 안마시술소를 출입한 사실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이번 특감 결과 국방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연예병사 8명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징계 대상은 7명이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병사에 대한 징계는

휴가 5일 이상 제한, 계급 강등, 영창 등이 있으며 징계 유형은 징계위에서 결정된다.

이모·최모 일병은 당시 춘천 공연 후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했고 김모 병장은 규정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하고 춘천 공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적절한 시간에 외출했다.

이모·김모·이모 상병은 휴대전화를 반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를 받게 됐다.

눈물로 얼룩진 한센인의 역사

6462명이 학살되거나 강제노역 시달려

진상규명위, 피해조사

한센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학살·폭행·차별에 시달린 한센인 피해사건이 3년간의 조사 끝에 밝혀졌다.

보건복지부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가 18일 발표한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에 따르면 광복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약 6462명의 한센인이 영문도 모른 채 폭행·살해당하거나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소록도에서 벌어진 '84년 학살사건'. 1945년 광복 직후 고흥군 소록도 갯생원에서는 병원 운영권과 식량, 의약품 확보를 위해 의사, 직원, 원생 간의 다툼이 일어났고 환자와 다툼을 빚던 직원이 고흥치안대를 끌어들여 원생 84명을 학살했다. 큰 사건이지만 당시 정부와 언론은 침묵했고 56년이 지난 2001년에서야 84명이 화장·매몰된 현장을 발굴하고 2002년 추모비를 세웠다.

공권력에 의해 한센인이 단체로 총살을 당한 사건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무안 연동사건과 나주 냇골 사건 등이 있다.

목포경찰서 수색대는 1949년 9월 목포 형무소에서 탈옥사건이 일어나자 도망가던 죄수와 옷을 바꿔입은 무안 연동의 한센인 40여명을 무차별 사살했다. 또 1950년 9월 한국전쟁 중 인민군 점령지 주민신고로 경찰이 희생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나주 경찰이 한센인 40여명을 살해했다.

강제노역에 동원되기도 보상도 받지 못한 일이 허다했다. 1962~1964년 소록도병원의 한센인은 고흥군 도양면 봉암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오마도 간척사업' 공사에 동원됐다. 이들은 사업이 완료되면 간척 토지를 분양받기로 했으나, 간척사업은 중도에 보건사회부에서 전담도로 이관됐으며 한센인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세계적 권위의 인증/FDA허가!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국제식품인증 ISO 9001인증, 국제의료기기인증 ISO 13485인증, 유해물질 테스트 CE 0120 인증, 의료기기 제조업체 GMP 인증

■ 광주광역시 47개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광역시 47개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시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